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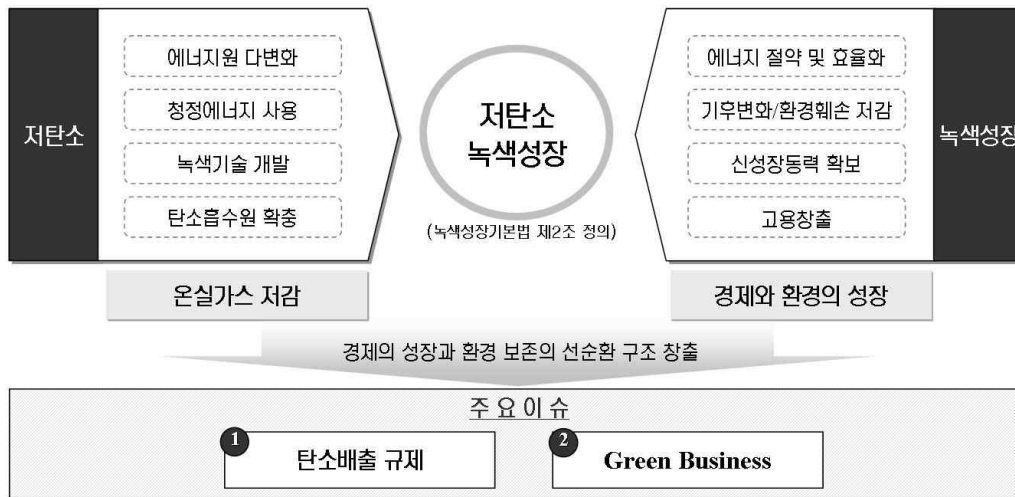
< 제11장 · 환경경영 촉진 및 기업의 역할 제고 >

가. 기업 경영환경변화

가. 1) 주요이슈 도출

- 정부가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청정에너지 및 녹색기술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하게 시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기조가 기업의 경영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이슈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다변화,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등의 저탄소 축과 에너지효율,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녹색성장 축을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성장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선순환 구조에서 기업에게 주요한 두 가지 이슈, 탄소규제와 녹색산업 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림 5-15> 주요이슈 도출



나. 2) 위기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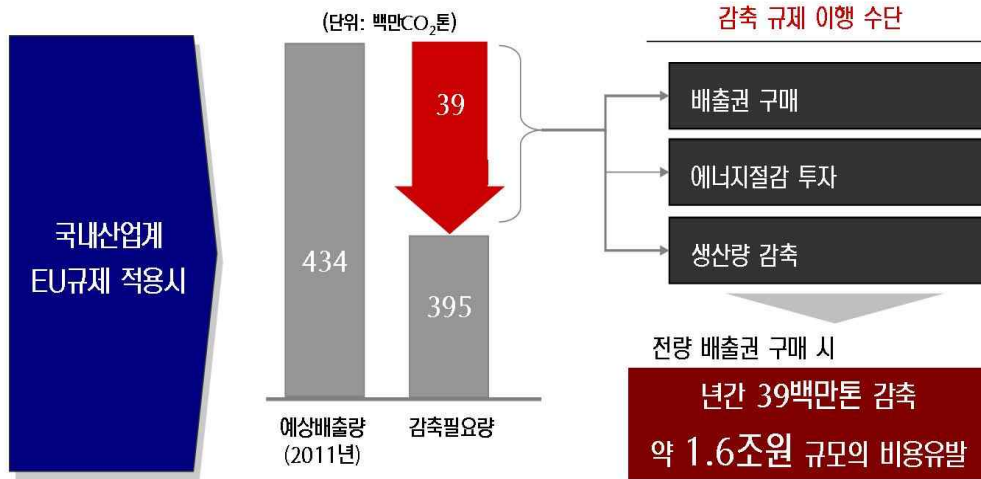
- 이러한 이슈들은 기업 경영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함
- 기업 단위 배출총량 규제에 따른 감축비용 발생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 제품 무역장벽에 따른 기술개발 및 벌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위협이 있기도 함.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확보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거나, 에너지 고효율 제품개발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됨
- 따라서, 이러한 양면적 환경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그림 5-16> 위협과 기회



- 이러한 위기를 정량화 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으므로, 유럽배출권거래제 2단계의 규제강도를 그대로 우리기업에 대입시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17> 국내 탄소규제에 대한 부담 EUETS가정)



□ 즉, EU는 12,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배출량의 9%를 감축하도록 하고, 9%가 넘 어가게 되면 톤당 100유로의 벌금을 매기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총 산업계에 배출 하는 양이 4억3천만 톤이고, 이 중에 9%를 감축해야 한다면 이는 3천 9백만 톤이고, 기업들이 3천9백만 톤을 감축하는 이행 방안에는 세 가지 있음. 하나는 배출권을 구매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에너지 투자에 설비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안, 세번 째는 감산하는 방안임. 가장 싼 건 배출권 구매이며, 배출권 구매하는 제일 저렴한 방 안으로 계산해보면 약 1.6조원의 감축비용이 예상됨

□ 이는 여러가지 가정을 통한 결과이므로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기업경 영에서 탄소규제와 관련된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임

다. 3) 경영환경변화의 심각성

□ 탄소규제는 환경규제를 대응하는 단순한 규제 문제 혹은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기 업생존의 문제임. 녹색기술도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업성장에서 고 려되어야하는 필수요소임. 다만, 산업에 따라 절대적 요소일 수도 있고 보충적 요소일 수는 있음

□ 예를 들어, 2005년도에 EU에서 배출권거래 즉, 탄소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유럽의 알 루미늄 제조사업장이 문을 닫기 시작함. 배출권 비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력값 상승이 라는 간접적 영향에 의한 것이지만, 사업장폐쇄의 주요 원인은 탄소규제임

□ 또한, 기업 성장의 요소적 측면에서 보면, GE의 Ecoimagination과 Green is Green을 들 수 있음. 즉, 환경은 돈이라는 전략으로 회사비전 자체를 친환경으로 가져감. 여기 서 주요한 사항은 GE가 과거에 쌓아온 역량이 금융역량, 기술역량, 제도역량, 재무역

량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들은 미래성장분야나 성장엔진 선택에 있어서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 그러나 GE가 선택한 것은 녹색임

나. 기업의 역할

라. 1) 선진사례

- 선진기업들은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정책보다 10~5년 정도 앞서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Early Mover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옴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일본제철의 고기능경량 강판은 1990년대부터 개발되었고, 토요타의 프리우스라는 미국에 출시된 것이 1997년이며, 기술개발 의사결정은 90년대 초반임. 그 결과 2008년도에 미국시장 점유율이 76%이고, 이는 절대적인 진입장벽임. GE의 경우도 2001년도에 Enron Wind를 3.3억불에 인수해서 2008년 매출이 65억불임. 즉, 폭발적이고 불연속적인 신규산업의 성장 길목을 지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필립스도 1994년부터 모든 제품의 30%를 녹색화하는 전사적 목표를 추진해 오고 있고, RWE라는 독일의 한전도 전체제품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선진기업의 이러한 행보는 일부의 사례로 여겨져서는 안 됨.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맥락의 변화가 확실한 바, 이에 대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임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표 5-50> 선진기업사례

	산업	회사명	업적	효과 및 목표
	철강	Nippon Steel	고기능경량 강판	탄소감축효과 3천억원
	자동차	TOYOTA	하이브리드카 출시('97)	2008 미국내 프리우스 시장점유율 76%
	기계	GE	풍력발전시스템 M&A를 통한 시장진입	2002년 \$3.3억 인수→'08년 \$65억 매출 달성
	전기/전자	미쓰비시 전기	태양광 패널, 열펌프 중심	현재 9.4조원에서 2016년 16조원 매출목표
	디스플레이	PHILIPS	LED조명 솔루션 등 Green product에 1.8조원 투자	'10년 매출목표 12조원
	발전	RWE	풍력중심 1.2조원투자	2020년 전력공급의 30% 재생에너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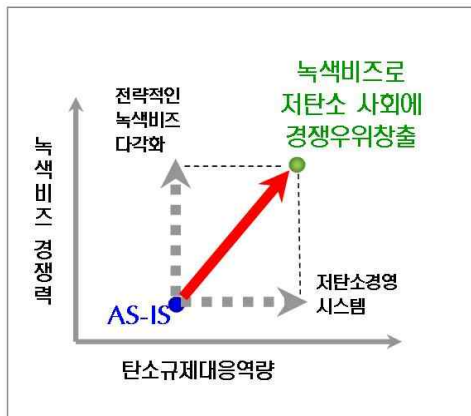
마. 2) 한국기업이 할 일

- ☐ 선진기업들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흐름을 읽고 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할 일은 세 가지임
- ☐ 하나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속에서 기업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방향을 알아야 함. 즉, 녹색비전을 수립해야 함. 두번째는 탄소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인 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규제대응체제를 구축해야함. 수동적으로 보면 규제대응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만, 능동적으로 보면 경쟁포지션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임. 세 번째는 녹색기술 확보를 통해서 미래성장 엔진을 시동거는 것임
- ☐ 먼저, 녹색전략수립은 두 가지 축임. 하나는 녹색비즈니스 경쟁력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저탄소규제대응의 축임.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놓고 기업의 현황을 포지셔닝하고 향후 저탄소사회에서의 기업의 미래를 포지셔닝한 후, 미래의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야 함. 예를 들어, 필립스는 1994년부터 에코비전1.2.3.4를 통해 해서 회사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게 됨. 이로 인해, 2008년도엔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Green Product이며, 계속 늘려가는 전략임. 또한, 토요타는 자동차 회사지만, 회사자체의 전략은 Sustainable mobility임. 지속가능한 이송을 위해 90년대 초반에 이미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 저탄소사회에서 하이브리드카로 미래를 포지셔닝한 것임
- ☐ 다음은 규제대응체제를 갖춰야 함. 즉, 사업장에서 탄소배출량 및 감축역량 파악, 감축 목표 설정, 재무영향 파악, 가격전가시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정부 협상에 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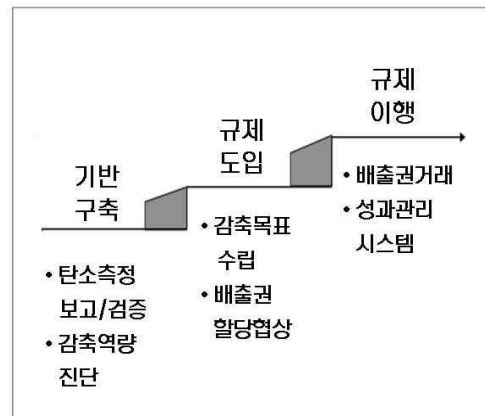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여 정책을 리드해 나가야 함. 예를 들어, BP의 경우, 규제가 시작된 2005년의 6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함. 760억 원의 비용절감도 달성했지만, 그 보다 EU에서 세계최초로 탄소규제를 만들 때 BP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BP는 정부가 자신이 유리한 대로 정책을 만들 수 있었음. 또한, CISCO도 각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분석하던 것을 activity별로 분석함으로 조금 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발견해 37%의 에너지를 절감함

<그림 5-18> 저탄소 녹색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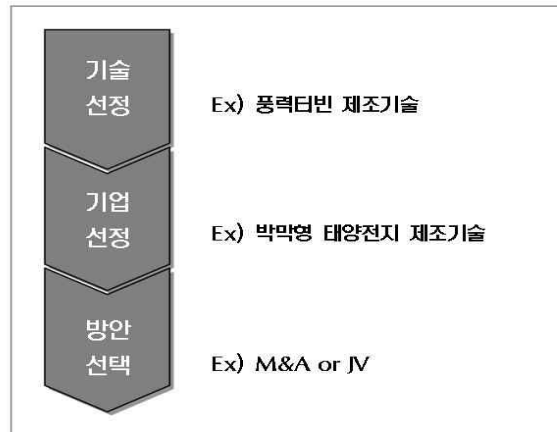


<그림 5-19> 규제대응체제구축



- 마지막으로 녹색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녹색기술확보는 기술을 선택해야 하고 회사를 선택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임. 기술의 선택시에는 회사의 내부역량의 고려와 외부시장의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기술의 종류에도 이미 상용화돼 있는 기술이 있고, 차세대 기술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면서 상용화기술 판매를 통해 피드백을 얻는 순환구조가 좋음. M&A나 JV 등을 통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기술이 확보하는 시기는 지금이 적기인데, 가격이슈도 있지만 Industry의 폭발적 성장이 있는 후에는 기술확보가 매우 어려워 짐. 또한, 기술확보의 효용은 Track Record의 확보측면에서 더 중요함. 예를 들어, 지멘스의 경우 GE보다 조금 늦게 풍력발전시장에 들어왔지만 포지션을 약간 달리해서 해상풍력으로 초점을 맞추어, Bonus라는 회사를 3억 유로에 인수했으나, 2008년 순이익만 1억 유로임. 태양광의 경우도 미국에 First solar라는 업체는 태양광의 주류기술인 폴리실리콘 기술에서 탈피하여, 90년대 초반부터 박막형 기술개발로 2001년도 상용화 후, 2007년도에 생산단가를 절반으로 낮추어 매출을 두 배로 늘림

<그림 5-20> 녹색기술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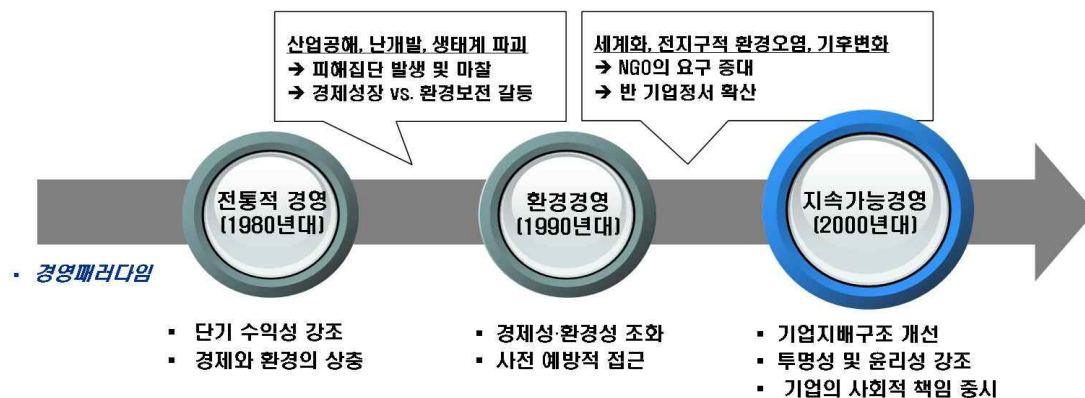


다. 기업이 필요한 관점

바. 1) 지속가능한 관점(Sustainable Perspective)의 필요성

- 저탄소사회에서 기업이 필요한 관점은 단연 지속가능한 관점이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이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의 필요조건임
-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은 환경 및 사회적 이슈의 부각과 함께 환경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80년대까지 단기수익을 강조하던 전통적 경영을 영위하던 기업이 1990년대에 산업 공해 및 난개발,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한 갈등을 바탕으로, 경제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경영을 실시하였고, 2000년대에는 세계화,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확산으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이 필요하게 되었음

<그림 5-21> 경영패러다임의 진화



- 즉,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제적 성과에만 매달려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시작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이슈로 인해 더욱 확산이 촉진되고 있음
- 이는 재무적 관점의 이해관계자인 주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및 사회적 관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만이 영속 가능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은 또 다른 촉진요소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환임. 즉, 교통과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기업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정보의 공유와 이에 따른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투명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더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압력 환경 및 기업 투명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기업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증대는, 정보 흐름의 가속화 및 정보의 투명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있음

사. 2) 저탄소사회와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 지속가능경영은 저탄소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저탄소사회에서는 기업의 핵심영역에서 지속가능관점 및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
- 현재 기업들에게는 지속가능경영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이고 지원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주요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해서 요구되는 사전적, 사후적 책임을 지는 위험 관리
 -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도움이 되는 명성관리
 - 신뢰에 바탕을 둔 장기적 상생적 관계를 구축하는 이해관계자 기반의 경영
 - 기업의 핵심전략과 경영시스템과 연계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련 지표 설정, 데이터베이스 평가 및 보고체계 등 일련의 인프라 구축활동 등
- 그러나, 저탄소사회에서는 기업에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더 나아가서 요구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마케팅, 생산, 기술혁신, 인력, 재무 및 정보관리의 핵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차이점이 있음. 이를 통해 사회발전과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의 경우, 탄소제한이 없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관점이 경영의 핵심영역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이고 지원적인 영역에 적용될 확률이 높은 반면, 저탄소사회에서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들이 회사 내 핵심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러한 핵심영역을 지속가능한 관점에 의하여 의사결정하고 자원배분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즉, 경영환경이나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등장하게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되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이 필요한 것임.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사회의 도래는 아래의 리스크들을 더욱 크게 만들고 이러한 리스크가 상호 연결되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은 경영의 핵심영역에 있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

<표 5-51> 지속가능경영의 종합적 관점

지속가능경영의 종합적 관점		
환경적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련 규제 강화 -폐기물관련 관리 -CO₂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에너지 관리 ■ 환경친화 상품 ■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시민으로의 사회적 책임강화 ■ 투명경영체제에 대한 요구 ■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 노동환경의 변화 ■ 시민단체의 위상강화 ■ 이해관계자들의 민감도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변동 ■ 원자재가 상승 ■ 다양한 원가 상승 요인 발생 [제품다양화, 인건비, 환경규제 등] ■ 글로벌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

라.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이고찰을 통한 검증

아. 1) 지속가능보고서와 경영

- ☐ 기업의 지속가능적 관점이나 지속가능경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은 지속가능보고서임
- ☐ 최근 KPMG는 전 세계 지속가능경영 보고 동향에 대한 한편의 조사보고서¹⁾(KPMG International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08)을 발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고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저탄소사회로의 변환의 과정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지속가능관점과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전환을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자 함
- ☐ 대상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브라질, 포르투갈, 캐나다, 루마니아,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한국,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이탈리아

(가) 1) 분석대상으로는 글로벌 포춘 250대(G250)기업 및 주요 22개국의 100대기업(매출액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3년부터 KPMG가 수행해온 조사내용 및 2007~2008년 동안 대상 기업별 외부로 발표된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활용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아, 네덜란드, 일본, 영국, 멕시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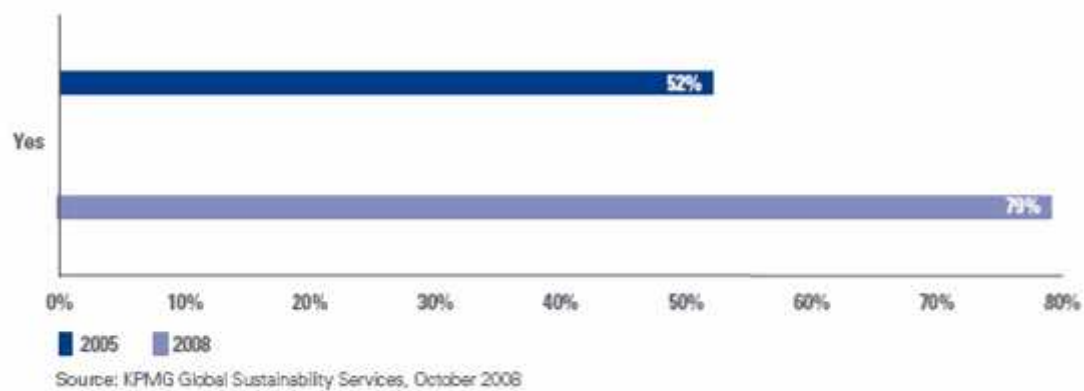
-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점차 이슈화되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과 글로벌 기업의 동향의 부합성을 보여주고자 함

자. 2) 주요내용

1) 가) 이해관계자 요구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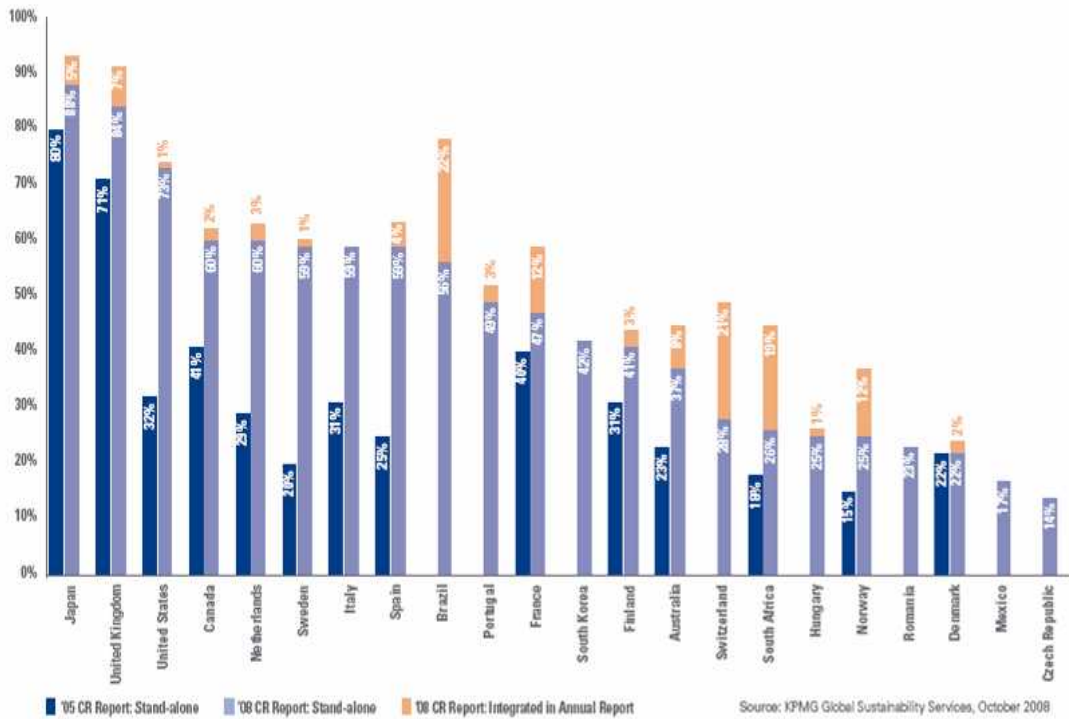
- G250기업의 약 80%가 독립적 형태(Stand-alone)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2005년 대비 25%나 향상된 결과를 나타냄

<그림 5-22> G250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 일본이 93%로 가장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음. 이 중 한국은 주요 22개국 중 12번째로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브라질,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 보여지는 지속가능경영의 보고가 기업의 연차보고서와 통합되는 형태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 고객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선응적 대응차원으로 이해됨. 여기서의 이해관계자 요구의 다양화 및 향후 규제 등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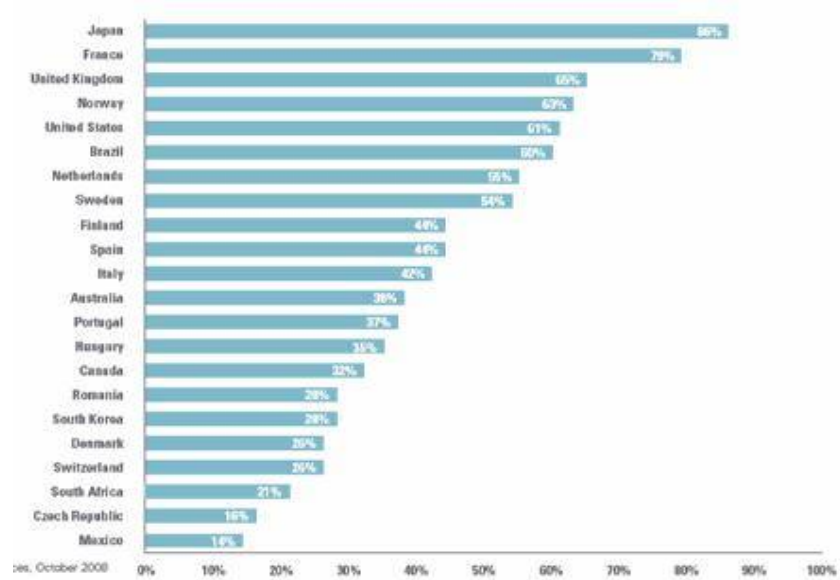
<그림 5-23> 주요 국가별 지속가능경영 보고현황(2005~2008)



2) 나) 핵심가치사슬로의 전이

-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긴 전략 및 작성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G250기업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체적인 기업전략 및 세부목표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별 지속가능경영보고 수준을 살펴보면 일본 및 영국 등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및 기업별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여부에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숙된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발간현황에 있어서는 중간수준(12위)인데 반해 지속가능경영전략유무를 고려했을 때 17번째로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냄. 이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의 속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탄소규제의 시차를 두고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전환도 시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5-24> 주요 22개국 기업 지속가능경영 전략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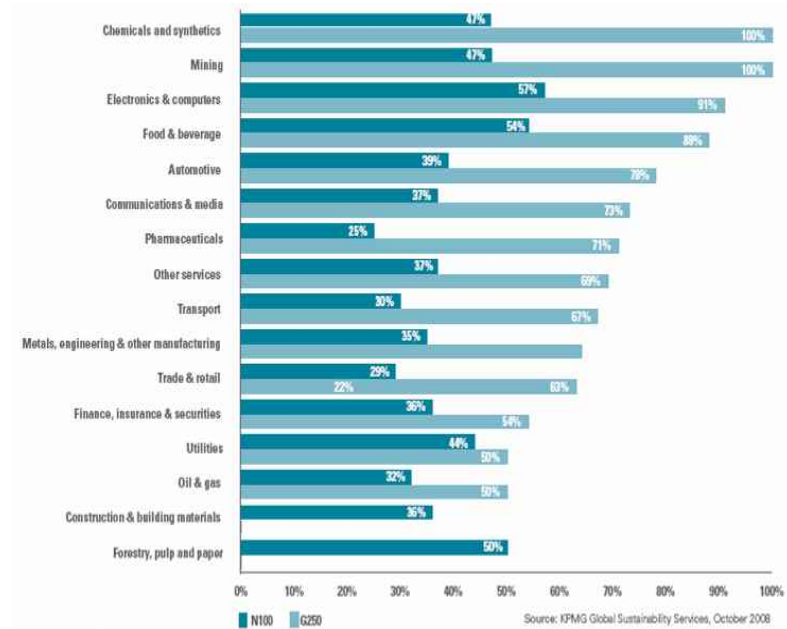


3) 다) 가치사슬의 범위 확산

- 각 산업별로 공급사슬망 위험을 보고함에 있어 G250기업 중 채굴 및 화학산업은 100%의 보고현황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제약, 통신, 식품 및 전자산업이 2005년 대비 많은 개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화학 및 채굴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 할 수 있고, 가치사슬간 전후방 연계성이 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공급사슬망 위험 보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석됨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그림 5-25> 업종별 공급사슬망 위험 보고 현황(G250 & N100)



- 이 중 G250기업의 약 65%, 주요 국가별로는 약 40%정도가 공급사슬망의 위험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G250기업의 경우 위험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의 약 90%정도가 공급자선정 관련 자체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26> 공급사슬망 체제에 대한 정보보고수준(G250 & N100)

Aspect of supply chain management	G250 (Sample size: 250)	N100 (Sample size: 2170)
Strategy (mission, vision stated)	64%	40%
Tactical (policies in place)	68%	42%
Operational (procedures described)	66% (total: 164)	44% (total: 961)
Specific operational procedures described	Sample size: 164	Sample size: 961
• Code of conduct included in supplier selection	88%	74%
• Code of conduct included in supplier contracting	82%	68%
• Code of conduct included in regular supplier auditing	59%	38%
• Provides data on number of suppliers audited for code of conduct	15/250 (6%)	65/2170 (3%)

4) 라) 기후변화의 이슈화

- ☐ G250기업의 57%, 주요22개국 기업의 32%가 기후변화의 위험을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보고기업 중 G250기업이 64%, 주요국가 기업이 34%로 기후변화관련 경영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 및 접근방법을 보고하고 있음
- ☐ 경영위험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규제위험(Regulatory Risk), 명성위험(Reputation Risk), 소송위험(Litigation Risk)으로 나타남

5) 마) 결론

-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존의 환경이슈를 대하던 기업의 역할 및 관점과 매우 다른 접근이 필요함
-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속에서, 탄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전환할 경우, 부분적인 사회변화가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 ☐ 이러한 맥락변화의 핵심은 탄소배출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녹색에너지로 바꾸는 것인데, 금융위기 가운데에서도, 경기침체를 극복하면서 기후변화를 동시에 대응하는 녹색뉴딜 및 녹색투자의 증가는 관련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맥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속화시킴
- ☐ 기업은 사업장배출 규제 및 무역 규제에 따른 위험이 있기도 하고, 녹색기술확보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의 기회를 갖기도 함
- ☐ 선진기업들이 저탄소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 행보는 일부의 사례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의 필수적 요소로 보아야 함
- ☐ 우리기업이 할 일은 세 가지임. 첫째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속에서 녹색비전을 수립해야 하고, 둘째는 효율적인 규제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는 녹색기술 미리 확보해야 함
-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저탄소사회에서 가져야 할 관점은 단연 지속가능한 관점임. 지속가능경영은 저탄소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저탄소사회에서는 지속가능관점 및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
- ☐ 왜냐하면, 저탄소사회에서는 기업에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더 나아가서 요구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며, 이는 사회발전과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임